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

- YahooFinance: 증시 반등세... 미국과 일본 등의 관세율 협상 기대감 때문
- WSJ: 골드만삭스, “베어마켓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 Bloomberg: 블랙록도 증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트럼프, 한국과의 관세 협상 전망 긍정 평가
- NYT: 트럼프 핵심 참모, “주요 국가들의 협상 제의, 트럼프 설득 어려울 듯”
- Bloomberg: 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선순위 확보
- WSJ: 미 관세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다음 주 초에 나올 듯

[한미 관계]

- CNNBusiness: 미국과 한국 군함 제조업체, 중국과의 해군 경쟁 격차 줄일 협약 체결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 미국과 유럽 양 지도자에 관세 인하 촉구
- WSJ: 월그린스, 미국 소매 약국 부문 성장으로 매출 상승
- WSJ: 할리데이비슨, 판매 부진과 관세로 새 CEO 찾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금융]

YahooFinance: Stock market today: Dow pops 1,300 points as S&P 500, Nasdaq surge on hopes for Trump tariff deals

증시 반등세... 미국과 일본 등의 관세율 협상 기대감 때문

- 관세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 속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 S&P 500은 3.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6%, 다우존스는 3.4%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 어제인 월요일만 해도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인해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요동쳤고, 다우존스는 350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은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WSJ: Any Bear Market Could Be Short-Lived, Says Goldman Sachs 골드만삭스, “베어마켓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관세 전쟁의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베어마켓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이에 따르면, 구조적인 약세장은 경제와 금융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1929년 대공황과 2007년 금융위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평균 지속 기간은 약 3년 반이며, 주가는 평균 60% 하락한다.
- 두 번째 유형은 금리 인상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 수익 하락 등이 유발하는 경기 순환적 약세장으로, 이 경우는 약 2년 정도 지속되며 주가는 평균 30% 하락한다.
- 전쟁, 팬데믹, 유가 급등 등 일회성 대형 사건의 여파로 인한 약세장은 평균 8개월간 지속되며 주가는 약 30% 하락한다.
- 현재는 ‘관세’라는 일회성 사건에 따른 베어마켓이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더 오랜 시간의 경기 순환적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WSJ 기사

Bloomberg: Goldman Warns of Bear Market, BlackRock Downgrades US Stocks

블랙록도 증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 블랙록은 향후 3개월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Overweight)’에서 ‘중립적(Neutral)’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무역 긴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블랙록의 CEO는 “나와 대화를 나눈 대부분의 CEO들은 미국이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기관의 전략가들은 안전 자산 보호 차원에서 단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미 관세 여파]

Bloomberg: Trump Says South Korea Talks ‘Good,’ Waiting for China Call 트럼프, 한국과의 관세 협상 전망 긍정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화요일), 한국과의 관세 협상 전망이 밝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후 밝힌 입장이다. 그는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현재 중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 관세 문제, 조선업 관련 이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LNG) 대규모 수입, 알래스카 송유관 공동 투자 사업,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 보호 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NYT: Top White House Adviser Indicates Offers From Trading Partners Won't Convince Trump to Retreat

트럼프 핵심 참모, “주요 국가들의 협상 제의, 트럼프 설득 어려울 듯”

-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수석 자문관은 어제(월요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 인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 그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연방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관련 논의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YT 기사

Bloomberg: Japan Scores Top Spot in Line for US Tariff Talks

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선순위 확보

-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USTR의 Jamieson Greer와 함께 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된다. 재무장관은 일본이 다른 무역국들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우선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일본의 이사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화요일) 내각회의를 개최했다. 그의 행정부는 경제부흥장관을 미국 대표단과의 협상을 총괄할 책임자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 일본은 미국에 대한 보복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전환한 주요 국가 중 하나다.

Bloomberg 기사

WSJ: EU Response to Trump's Tariffs Could Come as Early as Next Week

미 관세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다음 주 초에 나올 듯

-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대해 유럽은 우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 두 번째 대응 단계로는,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유럽산 모든 제품에 대한 20%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시행했으며, 곧 유럽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WSJ 기사

[한미 관계]

CNNBusiness: US and South Korean warship makers sign deal that could help narrow naval race with China

미국과 한국 군함 제조업체, 중국과의 해군 경쟁 격차 줄일 협약 체결

- 미국 최대 군함 제조업체인 HII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2025년 4월 메릴랜드 방산 전시회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 협약은 양국이 이지스 구축함 건조 기술을 공유하며 미국의 조선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군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인 울산에서 연간 5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조선소는 평균 2척 미만으로 생산량 격차가 크다.
- 전문가들은 이 협력이 미국의 조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보수 및 건조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 또한, 이번 협력은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NN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uto Manufacturers Urge Leaders on Both Sides of Atlantic to Lower Tariffs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 미국과 유럽 양 지도자에 관세 인하 촉구

-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측 지도자들에게 관세 인하를 촉구했다.
-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만나 공급망 불확실성과 무역 위험을 논의했다.
- 미국은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관세로 최대 670억 유로 규모의 EU 자동차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자동차 및 상호 관세로 총 800억 유로 비용이 예상되며, 이에 긴급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사들은 협상 해결책과 EU의 자동차 행동 계획 가속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했다.

WSJ: Walgreens Sales Rise on U.S. Retail Pharmacy Segment Growth 월그린스, 미국 소매 약국 부문 성장으로 매출 상승

-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2월 28일로 마감된 2분기 매출이 미국 소매 약국 부문 성장으로 38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370억 5천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 손실은 전년도 59억 1천만 달러(주당 6.85달러)에서 28억 5천만 달러(주당 3.30달러)로 줄었고, 일회성 항목 제외 시 주당 63센트의 수익을 달성했다.
- 미국 소매 약국 매출은 5.3% 증가한 304억 달러로, 약국 매출은 8.9% 상승했으나 뷰티 및 계절 상품 등 소매 판매는 5.5% 감소했다.
- 월그린스는 시카모어 파트너스에 인수되는 계약으로 인해 2025 회계연도 지침을 철회했으며, 인수 거래는 4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시카모어는 주당 11.45달러, 총 100억 달러의 지분 가치를 지불하며, 부채 포함 총 거래 가치는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WSJ: Harley-Davidson Seeks New CEO, Facing Sales Slump and Tariffs 할리데이비슨, 판매 부진과 관세로 새 CEO 찾는다

- 할리데이비슨은 5년간 CEO로 재임한 요헨 자이츠가 퇴임할 계획임을 밝히며, 후임자를 찾기 위해 경영진 검색 업체를 고용했다.
- 자이츠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중 취임해 공장 폐쇄와 공급망 문제에도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성을 높였으나, 오토바이 판매량은 계속 감소했다.
-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5만 1천 대의 오토바이를 판매했으며, 이는 2008년 판매량의 절반 미만 수준이다.
-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보복 관세로 인해 오토바이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딜러들은 자이츠가 할리데이비슨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회사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관세 가짜 뉴스에... 미국 증시 3천500조원이 '왔다갔다'
'관세 90일 유예설' 후 백악관이 부인한 10여분간 급등락
초유의 롤러코스터 장세... 나스닥 반등 마감
다우·S&P 500은 3거래일째 하락... 유가·금값도 하락 지속

미 10년 국채금리는 관세 발표 전 수준으로 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끝에 앞선 2거래일간 이뤄졌던 투매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반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26포인트 (-0.91%) 내린 37,965.6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3포인트(-0.23%) 내린 5,062.25에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8포인트(0.10%) 오른 15,603.26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